

동족목적어 구문의 유형과 구조*

손혜옥

(연세대학교)

Son, Hyeok. 2009. Structure and Types of Cognate Object Construction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7(2). 65-91. This paper defines the cognate object construction as a construction where the roots of both a verb and an object are identical, and categorizes cognate object constructions into three different typ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dicate of a sentence. When the predicate of a sentence is a transitive verb, which only takes a cognate object, subordinate words, or several specific words as an argument, it is regarded as Type 1 cognate object construction. Secondly, when the predicate of a sentence is a transitive verb that is not particularly limited in terms of selectional restriction, it is categorized as Type 2 cognate object construction. Finally if the predicate of a sentence is originally an intransitive verb but takes cognate objects optionally, then it is Type 3 cognate object construction. Afterwards, this paper analyzes each construction to examine how it is different from a typical type of transitive construction. As a result, it was clear that the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Type 2 cognate object construction is closer to that of typical transitive construction. However, the semantic characteristics of objects in Type 1 and 3 cognate object constructions are different from general object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dicate and/or syntactic characteristics of a construction are very much different from typical transitive constructions. The reason why the two types of cognate object constructions are different from a typical transitive construction is because the predicate and the cognate object of two types of cognate object constructions are similar to one constitution. Thus this paper concluded that the structure can be regarded as a collocation for two cognate object constructions only.

Key Words: cognate object, cognate object construction, transitive verb, intransitive verb, transitive construction, collocation

* 부족한 글을 꼼꼼히 읽고 날카로운 지적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의 논평 덕분에 글의 오류와 논리의 부족함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잘못은 필자의 책임이다

1. 서론

한국어에서 동사 어간에 명사형 파생접사가 붙어 명사가 된 형태가 동일한 어간으로 이루어진 동사의 목적어로 나타나는 문장이 있다. 이때 나타나는 동사의 어간과 동일한 형태의 어근을 가지는 목적어를 일반적으로 동족목적어라 하고 이러한 구문을 동족목적어 구문이라 한다. 다음이 동족목적어 구문의 예이다.

- (1) 영희가 꿈을 꾸었다.
- (2) 강아지가 주인이 주는 먹이를 먹었다.
- (3) 아버지는 호탕한 웃음을 웃었다.
- (4) 철수가 잠을 잤다.

동족목적어 구문에 관해서는 그간 목적어, 동사의 범주, 동사의 결합가에 대한 논의를 할 때 부분적으로 논의된 편이다.

목적어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동족목적어가 일반적인 목적어와 같이 ‘를’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사 구문에 수의적으로 나타난다든지, 특정 동사에 매우 제한적으로 출현하는 등의 특징 때문에 언급되었다. 이홍식(2000), 이광호(1988), 홍재성(1989)에서는 동족목적어가 다소 다른 특징을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일반 목적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였다. 이익섭·채완(1990)에서는 자동사로 하여금 타동사 노릇을 하게 해 주는 특수한 목적어라고 하였다. 이선희(1999)에서는 동사의 행위와 동질의 의미를 내포하는 동족목적어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타동사 구문에서 목적어 자리의 명사항들이 나타내고 있는 어휘 의미와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였다.

동사의 범주와 관련해서는 자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논의가 되었다. 한송화(2001)에서는 자동사 중에서 주어가 행위주인 일부 자동사가 통사적인 논항이 ‘를’ 명사구로 나타나기도 한다고 하며 이러한 동사를 자동사의 범위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형식(1996), 이병규(1996)에서는 한송화(2001)과 달리 동족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을 기본적으로 타동사로 보고 있다. 우형식(1996)에서는 이들 구문이 기본적으로 타동구문이나 서술동사의 타동성의 축소와 목적어의 낮은 한정성으로 인해 의사-자동구문이 된다고 하였다. 이병규(1998)에서는 동족목적어가 잠재논항인 경우 서술어가 이들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의미적 잉여성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기도 한다고 하여 기본적으로 이들을 타동사로 보고 있다.

동사의 결합가와 관련한 논의에서는 논자에 따라 동족목적어를 일괄적으로 문장구성요소로서의 필수성을 매우 높게 보기도 하고 유형에 따라 필수성 정도를 다르게 보기도 한다. 우형식(1994)에서는 다른 명사구에 비해 동족목적어가 다른 목적어에 비해 가장 필수적인 성격

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이병규(1998)에서는 ‘꿈’이나 ‘춤’과 같이 동사가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동족목적어의 경우에는 필수논항으로, ‘웃음’이나 ‘울음’과 같이 수의적으로 나타날 경우에는 필수성분과 부속성분의 중간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잠재논항으로 보아 같은 동족목적어 구문이라도 동족목적어의 필수성 정도를 유형에 따라 달리 보았다.

동족목적어 구문은 전형적인 타동구문과 그 특성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여러모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 의견은 조금씩 다르다.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동족목적어 구문의 범위를 논의마다 다르게 설정하고 동족목적어 구문의 양상이 동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점을 간과했기 때문으로 보인다.¹⁾ 홍재성(1989)에서는 동족목적어 구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동족목적어 구문의 전체적인 특징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동족목적어 구문이 일반적인 타동구문과 다르지 않다는 주장을 하는 것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동족목적어 구문이 서술어에 따라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는 양상은 기술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다 보니 자동사가 동족목적어를 취하는 경우까지 일반 타동구문과 다를 것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목적어 탈락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다.²⁾

따라서 본고는 동족목적어 구문 전반을 살펴 유형을 분류하고 그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어디까지를 동족목적어 구문으로 볼 수 있는가를 논의하여 동족목적어 구문을 확정할 것이다. 유형 분류는 동족목적어 구문의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할 것이다. 서술어에 따라 그 통사적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동족목적어 구문 각 유형의 특징에 대한 서술은 주로 전형적인 타동구문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에서 이루

1) 물론 이선희(1999), 이병규(1996), 한송화(2001)은 동족목적어 구문을 그 특성에 따라 구분해서 보고 있다. 동족목적어 구문이 그 유형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을 포착했다는 점에서 본고는 논의하려는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선희(1999), 한송화(2001)의 경우 동족목적어 구문을 한정하여 논의하였기 때문에 동족목적어 구문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병규(1996)의 경우에는 ‘꿈을 꾸다’류는 동족목적어가 필수논항(서술어의 개념구조상 필수적이면서 통사적으로도 필수적인 논항)이며, ‘웃음을 웃다’류는 동족목적어가 인여적 잠재논항(동사의 개념구조에서 의미적 참여자의 자격을 갖지만 통사적으로 논항의 실현이 필수적이지 않은 논항)이라고 하였지만 이들 모두 서술어가 두 개의 논항을 취하는 타동구문으로 본다고 하였다. 즉 동일한 타동구문이지만 동족목적어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한 것이다. 그러나 잠재논항은 동사의 개념구조에서 의미적 참여자로서의 자격을 가져야 하는데 인여적이라면 이 요소가 개념구조에서 의미적 참여자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된다.

2) 홍재성(1989)의 주요 논점은 소위 동족목적어보어 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타동구문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동족목적어보어 구문이라고 달리 서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여러 목적어답지 않은 통사적 제약들도 목적어 위치에 오는 명사구가 한정적일 경우 해소되고, 동족목적어가 가지고 있는 어휘적 제약은 일반 동사의 명사 선택계약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명사구가 한정적일 경우에만 해소가 된다는 것도 일반 목적어와 다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통사적 제약이 동족목적어 모든 구문에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이 논의의 가장 큰 문제는 동족목적어 구문이 타동구문과 다르지 않다면 왜 일부 구문의 경우에 동족목적어가 수의적으로 나타나는가 하는 점이다. 홍재성(1989)에서는 뚜렷하게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다만 하위구조 가설을 선택하여 특정한 경우에 목적어가 탈락되는 것이라고 했지만 특정한 경우가 무엇인지 왜 탈락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

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전형적인 타동구문과 차이를 보이고 있는 동족목적어 구문의 구조를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를 덧붙이겠다.

동족목적어 구문에 대한 연구는 목적어, 타동성, 동사 범주에 관한 논의와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동족목적어 구문에 대한 연구가 위의 논의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인 목적어와 타동구문의 규정, 동사 범주의 구분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제시할 수는 없을지라도 이들 논의에서 문제시되는 현상의 올바른 파악에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동족목적어 구문은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나 프랑스어와 같은 인구어, 그 외의 여러 언어에서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며³⁾ 이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다.⁴⁾ 동족목적어 구문의 출현이 범언어적 현상이라고 할 때 한국어의 동족목적어 구문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어 이외의 여러 언어에서 나타나는 동족목적어 구문의 현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2. 동족목적어 구문의 정의와 범위

일반적으로 동족목적어 구문은 형태적, 의미적 특징을 기준으로 하여 구별한다. 그러나 의미적 특징을 기준으로 삼을 때 동족목적어 구문의 구별은 명확하지 않다. 우형식(1996)에서 동족목적어 구문에서 이른바 동족목적어는 형태적으로 서술동사와 동일 파생의 유연성을 가지며 어휘적으로는 [동작성]을 띠고 서술동사의 행동의 유형을 한정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NP’이 [사물지시성]을 띠는 구문은 동족목적어동사 구문에서 제외한다.⁵⁾ 그의 논의를 따

3) 동족목적어 구문은 영어, 독일어, 불어 등 인구어에서 뿐만 아니라 이들과 계통론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른 많은 언어에서 나타나고 있다. Austine(1982)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의 6개의 원주민 언어와 북부 뉴기니아 해안의 Manam어에서 동족목적어 구문이 나타난다고 언급하였다. Jayaseelan(1988)에 따르면 인도 남부지역에서 쓰이는 드라비다어인 Malayalam에서는 모든 자동사가 동족목적어를 허용한다고 한다. - 홍재성(1989) 재인용.

4) 영어의 동족목적어에 대한 연구는 성창섭(1997)에 정리된 바 있다. 영어에서 동족목적어 구문에 대한 연구는 무엇이 동족목적어이며, 자동사구문에 나타난 동족목적어가 논항인가 부가어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Nakajima(2006)에서는 자동사구문에 나타난 동족목적어의 경우 비능격일 때는 논항의 자리에, 비대격일 때는 부가어의 자리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5) 우형식(1996)에서는 서술구조가 서술동사뿐만 아니라 성분명사에 어휘적으로 의존된다고 하여 타동구문의 ‘를’격 명사의 어휘적 조건에 대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를’격 명사를 의미자질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른다면 동일한 문장이 두 가지 유형의 구문으로 나뉘게 된다. 실제로 우형식(1996)에서는 ‘금을 굶다’의 경우 ‘금’이 [사물지시성]을 띠면 일반 타동구문으로, [동작성]을 띠면 동족목적어 구문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동일한 문장을 두 가지 구문으로 나누어 설명한다는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NP를’의 [동작성]과 [사물지시성]을 나누는 것이 항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1)은 우형식(1996)에서 동족목적어 구문으로 본 것이다. (1)의 경우에 ‘꿈’은 서술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꿈’이 다음과 같이 관형어의 한정을 받을 때도 동작성을 띠고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

(1) 영희가 무서운 꿈을 꾸었다.

(1)의 경우 ‘꿈’은 물론 [사물지시성]은 아니지만 어떤 지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물은 아니지만 분명히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작성]이라고 하기에는 어렵다.

(5) 인간은 누구나 각자에게 주어진 짐을 지고 살아간다.

‘짐을 지다’는 우형식(1996)에서 동족목적어 구문에서 제외되었지만 (5)의 문장을 보면 ‘짐’이 [사물지시성]을 띠었다고 하기 어렵다. 이렇게 ‘NP를’의 의미적 속성으로 동족목적어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일부 학자들은 동족목적어 구문에서 서술어가 타동사인 것을 제외하는 경우도 있다. Jonse(1988)에서는 자동사가 동사의 상태나 사건을 가리키는 명사를 목적어로 취하는 구성

[동작성] { [외적동작성]
 [내적동작성]

그리고 구체적인 예문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i) a. 그는 어제 만났던 선생을 기다렸다.
- b. 그는 그 선생을 잘 따랐다.
- c. 그는 선생을 천직으로 여겼다.
- (ii) a. 그는 제주도도 여행을 떠났다.
- b. 그는 무엇에든지 욕심을 부렸다.

(i)은 [지시성]을, (ii)는 [동작성]을 띠는 성분명사를 가진 문장이라고 하였다. (ia)의 ‘선생’은 구체적인 인간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인간성]을, (ib)의 ‘선생’은 인간의 말이나 신념 같은 사태를 지시한다는 점에서 [사태지시성]을, (ic)의 ‘천직’은 지시체의 내적 속성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속성지시성]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iia)의 ‘여행’은 가시적인 외적 동작을 나타낸다는 점에서 [외적동작성], (iib)의 ‘욕심’은 심리상태의 내적 동작을 뜻하므로 [내적동작성]으로 구분된다고 하였다.

을 동족목적어 구문으로 보았다. Massam(1996)에서는 타동사 구문인 'dream a dream', 'dance a dance'가 동족목적어 구문에 속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고 있다.⁶⁾ 그러나 이들을 동족목적어 구문에 제외하는 특별한 이유가 제시된 것은 아니다. 한송화(2001)에서도 전형적 타동사 구문인 '꿈을 꾸다', '춤을 추다'를 동족목적어 구문에서 제외하였다. '꿈'과 '춤'이 형태적으로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일 뿐이며 엄밀한 의미에서 동족목적어로 볼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웃음을 웃다', '울음을 울다'의 '웃음'이나 '울음'도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이다. 따라서 동족목적어 구문을 자동사가 'NP를'을 취하는 것에 한정시킬 객관적인 근거는 없다.

홍재성(1989)에서는 가장 넓게 동족목적어 구문을 확정했다. 그 기준이 다음과 같다.

(6) N0 Vk-n-ACC Vk

(동족목적어보는, 동사 Vk가 사용된 단문 내에서 이 동사 Vk와 동일한 어근을 기형으로 한 파생명사 및 그 파생명사를 내포한 합성명사 Vk-n이 분포된 목적보어를 지칭한다.)

그리고 이 기준에 들어오는 구문의 목록을 제시했다.

(7) V-n=V-□

가르침을 가르치다, 걸음을 걷다, 꿈(국)을 고다, 뽕을 피다, 구름을 구르다, 꾸러미/꾸러미를 꾸리다, 꿈을 꾸다, 뽕을 껌다, 그림을 그리다, 금을 굶다, 놀음을 놀다, 느낌을 느끼다, 다짐을 다지다, 뽕을 뛰다, 땀을 뜨다, 맺음을 잘 맺다, 무침을 무치다, 묶음을 묶다, 물음을 묻다, 믿음을 민다, 받침을 받치다, 부침/부침이를 부치다, 비빔을 비비다, 싸움을 싸우다, 삶을 살다, 씹을 싸다, 썸을 세다, 숨을 쉬다, 앓을 앓다, 얼음을 얼리다, 외침을 외치다, 울음을 울다, 웃음을 웃다, 잠을 자다, 절임을 절이다, 줄음을 줄다, 줄임을 줄이다, 죽음을 죽다, 줌을 줍다, 지짐/지짐이를 지지다, 짐을 지다, 찜을 찌다, 차림을 차리다, 춤을 추다, 튀김을 튀기다,

(8) V-n=V-기

(높이-)뛰기를 뛰다, 달리기를 달리다

(9) V-n=V-이

구이를 굶다, (웃-)놀이를 놀다, 높이를 높히다, 다리미를 다리다, 먹이를 먹다, (귀양-)살이를 살다, (기슴-)왕이를 앓다, (견-)절이를 절이다, (손-)잡이를 잡다

(10) V-n=V-개

6) 성창섭(1996)에서 재인용.

가리개를 가리다, 깔개를 깔다, 끼우개를 끼우다, 단개를 단다, 덮개를 덮다, 뜨개를 뜨다, 베개를 베다, 마개를 막다

(11) V-n=V-∅

띠를 띠다, 되를 되다, 멩치를 멩치다, 빗을 빗다, 신을 신다

홍재성(1989)에서 제시한 기준은 형태적인 기준으로 동족목적어 구문을 판별하고 있다. '를' 논항의 의미나 명사 파생 정도는 앞에서 확인했듯 그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본고는 동족목적어 구문을 확인하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은 형태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홍재성(1989)의 동족목적어 구문의 정의인 (6)을 받아들일도록 하겠다. 그러나 파생접미사 '-음, -기, -이' 외의 접미사와 결합하는 경우는 동족목적어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음, -기, -이'의 경우는 동사를 명사로 만들어주는 것 이외의 다른 의미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개'의 경우는 '기구'라는 어휘적 의미도 가지고 있으므로 '-개'와 결합한 경우에는 동족목적어로 보지 않는다. 영파생접미사의 경우는 그 설정 자체가 논란의 여지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제외한다.

홍재성(1989)에서 제시한 목록의 양이 적지 않기에 본고에서는 이를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다만 홍재성(1989)의 목록 중에서 'NP를'이 V의 파생형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와 그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제외하도록 하겠다. 성립이 불가능한 유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꿈을 고다'처럼 실제 사용이 어색한 경우와 '구이를 굶다'처럼 '구이' 단독으로 '를'과 결합하여 쓰일 때는 어색하지만 '생선구이를 굶다'처럼 합성형이 되어 '굶다'와 쓰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다. 전자는 당연히 어색하므로 제외하고 후자의 경우는 합성형만을 허용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동족목적어 구문과는 다르다는 판단 하에 동족목적어 구문에서 제외하도록 하겠다. 제외하는 것들은 다음과 같다.

(12) 성립이 어색한 것

a. V-n=V-□

꿈을 고다, 껌을 꺾다, 구름을 구르다, 꾸림을 꾸리다, 땃음을 땀다, 묶음을 묶다, 믿음을 믿다, 받침을 받치다, 비빔을 비비다, 앓을 앓다, 절임을 절이다, 줄임을 줄이다, 지짐을 지지다, 찜을 찌다, 차림을 차리다

b. V-n=V-기

뛰기를 뛰다

c. V-n=V-이

구이를 굶다, (옷-)놀이를 놀다, 다리미를 다리다, (귀양-)살이를 살다, (가슴-)앓이를 앓다, (견-)절이를 절이다, (손-)잡이를 잡다

(13) 동사 파생형이 아닌 경우

금을 긋다, 꾸러미를 꾸리다, 높이를 높히다, 얼음을 얼리다, 줌을 줍다

최종적으로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동족목적어 구문은 다음과 같다.

(14) 동족목적어 구문

가르침을 가르치다, 걸음을 걷다, 그림을 그리다, 꿈을 꾸다, 놀음을 놀다, 느낌을 느끼다, 다짐을 다지다, 달리기를 달리다, 땀을 뚍다, 땀을 뜨다, 먹이를 먹다, 물음을 묻다, 반침을 받치다, 삶을 살다, 섶을 세다, 숨을 쉬다, 싸움을 싸우다, 싸움을 싸다, 외침을 외치다, 울음을 울다, 웃음을 웃다, 잠을 자다, 졸음을 졸다, 죽음을 죽다, 짐을 지다, 춤을 추다

3. 동족목적어 구문의 유형과 특징

동족목적어 구문은 그 특성이 단일하지 않다. 동족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전형적인 타동사부터 수의적으로 동족목적어를 취하는 자동사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족목적어 구문을 살펴려면 먼저 동사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에 따라 그 유형을 나누어야 한다. 동족목적어 구문의 동사가 타동사인 경우는 또 동사가 목적으로 요구하는 논항이 제약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전자를 제 1유형 동족목적어 구문, 후자를 제 2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이라 하겠다. 동족목적어 구문의 동사가 자동사인 경우에는 제 3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이라 하겠다.

3.1 제1유형 동족목적어 구문

제 1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으로는 ‘꿈을 꾸다, 춤을 추다, 숨을 쉬다’, ‘땀을 뜨다’가 있다.⁸⁾

- 7) ‘쉬다’는 자동사 ‘쉬다’와 ‘숨’을 목적으로 필수적으로 취하는 타동사 ‘쉬다’가 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의미로 동음이의어로 볼 수 있다. 자동사 ‘쉬다’는 몸의 피로를 풀고 없애는 행위나 어떤 행위를 멈추는 것을 뜻하나 타동사 ‘쉬다’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을 뜻한다.
- 8) 익명의 심사자께서 영어의 동족목적어 구문으로는 dream a dream이나 dance a dance와 같은 구는 거의 출현되지 않으며 오히려 dream a horrible dream, dance a beautiful dance와 같이 동족목적어가 수식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따라서 한국어의 동족목적어 구문에서 수식어에 수식받는 구문을 일차적으로 동족목적어 구문으로 취급하고 통사/의미적 특징을 살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한국어의 경우는 영어와 달리 수식을 받지 않는 구문의 쓰임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수식을 받지 않는 동족목적어 구문을 기본적으로 살피고 수식을 받을 경우는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1000만 어절의 21세기 세종계획 연구 · 교육용 현대국어 균형 말뭉치 중 문어 말뭉치 900만 어절을 10분의 1로 축소한 말뭉치(이 말뭉치는 김형정(2006)의 연구 성과로 연세대학교의 서상규 선생님을 통해 대학원생의 연구용으로 배포되었다.)를 대상으로 하여 ‘꿈을 꾸다, 춤을 추다, 숨을 쉬다, 그림을

- (15) a. 언니는 요즘 밤에 종종 꿈을 꾸다.
- b. 아이들은 흥이 나서 신나게 춤을 추었다.
- c.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히 먹고 마시고 숨을 쉬어야 한다.
- d. 한의사가 통증이 있는 부위에 뜸을 뒀다.

‘꾸다, 추다, 쉬다, 뜨다’는 매우 제한된 명사구를 ‘를’논항으로 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예문 (16)을 보면 ‘꾸다, 추다’는 동족목적어나 동족목적어의 하위어만을 논항으로 취하고, ‘쉬다’는 ‘숨’이나 ‘한숨’만을 목적어 논항으로 취한다. ‘뜨다’는 ‘뜸’과 ‘부항’만을 목적어 논항으로 취하는 것을 알 수 있다.9)

- (16) a. 언니는 [악몽, 태몽, 길몽...]을 꾸었다.
- b. 아이들은 [디스코, 쌍무, 탭댄스, 어깨춤...]을 추었다.
- c. 나는 [한숨]을 쉬었다.
- d. 한의사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부항]을 뒀다.

제 1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은 제한된 명사구만을 목적어로 취하고 목적어의 특성인 피영향성이 두드러지지 않으므로 과연 이들을 타동 구문 안에서 설명할 수 있는지, 타동구문 안에서 설명할 수 있다면 전형적인 타동 구문과는 어떻게 다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홍재성(1989)에서는 목적어의 방법론적 가정을 다음과 같이 세웠다.

- (17) N1-Acc에서 Acc-를이 다른 비대격 조사 Acc-와/-에/-로 등과 치환을 허용하지 않는다.
- (18) N1-Acc는 부분 의문문에서 누구/무엇/어디-Acc에 대응된다.

(17), (18)의 기준을 제1유형의 동족목적어 구문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10)

그리다, 잠을 자다’의 용례를 검색해보았는데 ‘꿈을 꾸다’를 제외하고는 수식을 받지 않은 동족목적어가 쓰인 구문이 50%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꿈을 꾸다’의 경우는 수식이 있는 경우가 약 60% 정도로 나타났다.

- 9) (16)은 이 유형의 동족목적어 구문의 동사가 취할 수 있는 논항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이지 (16)을 동족목적어 구문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 10) 홍재성(1989)의 기준이 목적어 성립의 절대적인 조건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어에서 목적어를 규정하는 것은 여러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명쾌한 것은 아니다. 형태적으로 ‘를’이 실현되면 목적어로 볼 수 있지만 이동 동사의 처소 논항이나 시간부사어 같이 목적어가 아닌 성분에도 ‘를’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형태적인 특성만을 가지고는 판단을 내릴 수 없다. 통사적으로 피동문 대응, 관계관형화, 분열문되기, 삭제 실험 등등의 기제가 있지만 이 역시 예외가 있어 절대적 기준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타동성을 가지고 목적어에 관한 논의를 하는데 타동성이 정도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 (19) a. 언니는 어젯밤에 꿈(을, *이, *에, *으로...) 꾸었다.
 b. 아이들은 신나게 춤(을, *이, *에, *으로...) 추었다.
 c. 생존하기 위해서는 숨(을, *이, *에, *으로...) 쉬어야 한다.
 d. 한의사가 통증이 있는 부위에 뜸(을, *이, *에, *으로...) 뒀다.
- (20) a. *언니는 어젯밤에 무엇을 꾸었니?
 b. *아이들은 무엇을 추었니?
 c.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쉬어야 하니?
 d. *한의사가 통증이 있는 부위에 무엇을 뒀니?

제 1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은 (17)의 기준에는 부합하지만 (18)의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20)은 문장 성립 자체도 어렵고 (19)의 동족목적어 구문에 대한 질문으로서도 성립이 어렵다.¹¹⁾ (20a-c)의 예문이 동족목적어 구문에 대응한 질문으로 성립이 불가능한 것은 ‘꾸는 것’은 당연히 ‘꿈’이고, ‘추는 것’은 당연히 ‘춤’이고, ‘쉬는 것’은 당연히 ‘숨’이기 때문이다. (20d)의 경우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뜸을 뜨다’의 대응된 질문으로서는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문장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면에서 일반 타동구문과 동일한 양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꾸다, 추다, 쉬다, 뜨다’ 구문의 ‘NP를’이 (18)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본고에서는 ‘꾸다, 추다, 쉬다, 뜨다’가 이끄는 구문은 필수적으로 ‘NP를’ 논항을 필요로 하고 (17)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이들을 타동구문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유형의 서술어가 선택제약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동사 파생형이나 그 하위어만을 목적어로 취거나, 혹은 ‘뜨다’의 경우와 같이 매우 제약된 특정 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점이 하는 것이 일반 타동구문의 서술어와는 다른 특성이다.

(17)과 (18) 외에도 통사적으로 목적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양정석(1987)과 이홍식(2000)에서는 삭제실험, 분열문 형성, 관계관형화, 어순변화, 주제화를 제시했다. 이홍식(2000)에서는 피동문 만들기도 목적어 확인 기제로 제시했으나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들었

타동성의 외연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에 따라 목적어의 범위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목적어를 규정하는 것에 절대적인 기준을 찾기는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어떤 ‘NP를’이 위에서 언급한 형태적, 통사적 특성, 의미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목적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홍재성(1989)의 기준이 목적어 성립에 필요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전형적인 목적어라면 이와 같은 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동족목적어 구문의 ‘NP를’을 목적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이 기준을 사용하도록 하겠다.

- 11) 익명의 심사자께서 이 예문이 자연스럽다고 하였으나 필자에게는 같은 의미의 질문을 할 것 같으면 ‘언니는 어젯밤에 무슨 꿈을 꾸었니?’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리고 직관이 달라 이 예문이 비문이 아니라고 해도 (20)의 예문은 (19)에 대한 질문으로서는 성립이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본 논의가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

을 때 어색한 문장이 많고, 목적어가 피동문에 나타나기도 하므로 적용해 보지 않았다. 따라서 삭제실험, 분열문 형성, 관계관형화, 어순변화, 주제화를 차례로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 (21) a. *언니는 요즘 밤에 종종 꾀다.
 b. *아이들은 흥이 나서 신나게 추었다.
 c. *생존하기 위해서는 필히 먹고 마시고 쉬어야 한다.
 d. *한의사가 통증이 있는 부위에 떴다.
- (22) a. *언니가 어젯밤에 꾀 것은 꿈이다.
 b. *아이들이 신나게 춘 것은 춤이다.
 c. *생존하기 위해 쉰 것은 숨이다.
 d. *한의사가 통증이 있는 부위에 뜬 것은 뜸이다.
- (23) a. 언니가 어젯밤에 꾀 꿈은 태몽이다.
 b. 아이들이 신나게 춘 춤은 디스코이다.
 c. *그가 쉰 숨은...
 d. ?한의사가 뜬 뜸은...
- (24) a. 꿈을 언니가 꾸었다.
 b. 춤을 아이들이 추었다.
 c. ?숨을 사람들이 쉰다.
 d. ?뜸을 한의사가 떴다.
- (25) a. 꿈은 언니가 꾸었다.
 b. 춤은 아이들이 추었다.
 c. ?숨은 아이들이 쉬었다.
 d. ?뜸은 한의사가 떴다.

(21)을 보면 모두 ‘꿈’, ‘춤’, ‘숨’, ‘뜸’을 삭제하면 문장이 비문을 되는 것을 보아 이들이 문장의 필수성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2)부터 (25)의 예문을 보면 꿈을 꾸다와 ‘춤을 추다’의 경우는 분열문을 제외하고는 관계관형화, 어순변화, 주제화 모두 가능하다. 분열문이 되지 못하는 것은 ‘언니가 어젯밤에 꾀 것’, ‘아이들이 신나게 춘 것’은 당연히 ‘꿈’, ‘춤’이기 때문에 일종의 동어 반복처럼 되기 때문에 문장이 어색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꿈을 꾸다, 춤을 추다’의 경우 분열문의 초점 자리에 한정적인 NP가 오면 문장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위치는 것 같은데 화자마다 직관이 다를 것으로 보인다.¹²⁾

12) 제 2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의 경우에는 동족목적어가 수식을 받으면 분열문이 가능해진다. 이는 분열문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제 1유형의 경우는 동족목적어가 수식을 받아도 ‘숨을 쉬다, 뜸을 뜨다’는 분열문이 아예 불가능하고, ‘꿈을 꾸다, 춤을 추다’도 수식이 없는 경우 보다는 자연스럽게 화자에 따라

- (26) a. ?언니가 어젯밤에 꾸는 것은 무서운 꿈이다.
 b. ?아이들이 신나게 춘 것은 요즘 유행하는 춤이다.

‘숨을 쉬다’와 ‘땀을 뜨다’의 경우는 관계관형화도 안되고, 어순변화, 주제화도 안 된다. 관형어의 수식을 받아도 제약이 풀리지 않는데 ‘숨을 쉬다’의 경우는 주로 ‘숨을’과 ‘쉬다’, ‘땀을’과 ‘뜨다’가 문장 안에서 항상 같이 붙어 쓰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타동 구문은 일반적으로 서술 동사가 나타내는 행동이 행위주로부터 대상이 되는 목적어로 옮겨지는 타동성이 드러난다. 타동성은 주어의 의도성, 목적어 성분의 피영향성과 대상성이 두드러질 때 높아진다.¹³⁾ 제1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의 타동성 정도를 보면 전형적인 타동 구문과는 차이가 있다. 주어의 의도성은 확인되지만 ‘꿈, 춤, 숨, 땀’은 동작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동사가 나타내는 동작을 나타내며 동작에 의한 영향반응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선희(1999)에서는 ‘NP를’을 원형대상어의 자질을 가지고 있음을 논의했는데, 이들 동족목적어는 동사가 나타내는 사건에 의존함으로써 존재한다는 면에 한정되어 원형대상역과 관련을 맺고 있다고 하였다. 즉 일반적인 ‘NP를’보다는 이 유형의 동족목적어가 원형대상역으로부터 멀어진 것이다. 그러나 타동성을 정도성으로 파악한다면 이들도 역시 타동구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다만 전형적인 타동구문에서 멀어졌다고 할 수 있겠다.

3.2 제 2유형 동족목적어 구문

다음 구문의 동사는 타동사로 반드시 목적어를 필요로 한다. 이들은 동족목적어를 취하기는 하지만 제 1유형의 동족목적어 구문과는 조금 다르다.

- (27) a. 김화백이 {그림, 초상화, 자연풍경, 꽃...}을 그렸다.
 b. 아버지는 어깨에 {짐, 쌀, 나무...}을 지고 집으로 들어오셨다.
 c. 코끼리가 사육사가 주는 {먹이, 사료, 과자}를 먹고 있었다.

(27)에서 ‘그림’, ‘짐’, ‘먹이’ 외에 나타나는 명사구는 그 종류가 다양하다. 제 2유형에서는 동족목적어 혹은 그 하위어가 오거나 아니면 매우 제한된 명사만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지만 제 2유형의 동족목적어 구문의 동사들은 다양한 명사들을 목적어로 취할 수 있다.

이 유형에 속하는 동족목적어 구문에 (17)과 (18)의 기준을 적용해 보면 (17)만 부합하는

비문으로 보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13) 타동 구문을 원형 이론으로 접근한 논의로 Hopper & Thompson(1980)과 이를 한국어에 적용한 연재훈(1997)이 있다. 우형식(1996)에서는 타동 구문을 넓게 보고 서술동사와 목적어, 주어 사이의 의미 요인에 따라 정도성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들 논의는 모두 타동 구문에 대한 의미적 접근으로 타동 구문의 판별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타동 구문을 폭넓게 보고 정도의 문제로 다루었다.

것을 알 수 있다.

- (27)' a. 김화백이 그림(을, *이, *에, *으로..) 그렸다.
 b. 아버지는 어깨에 짐(을, *이, *에, *으로...) 지고 집으로 들어오셨다.
 c. 코끼리가 사육사가 주는 먹이(를, *이, *에, *으로...) 먹고 있었다.
- (28) a. *김화백이 무엇을 그렸니?
 b. *아버지는 어깨에 무엇을 지고 집으로 들어오셨니?
 c. *코끼리가 무엇을 먹고 있었니?

그러나 이 경우 (17)이 부합되지 않는 이유는 앞서 동족목적어가 필수적인 구문과는 차이가 있다. (28)은 그 문장 자체로는 비문이 아니나 동족목적어 구문을 대담으로 하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성립이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점도 제 1유형 동족목적어 구문과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이들 유형의 구문에 삭제 실험, 분열문되기, 관계관형화, 어순변화, 주제화를 적용해 보면 (29)의 분열문되기만을 제외하고 다음과 같이 일반 타동구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 (29) a. *김화백이 그린 것은 그림이다.
 b. *아버지가 어깨에 진 것은 짐이다.
 c. *코끼리가 먹은 것은 먹이다.
- (30) a. 김화백이 그린 그림은 명작이다.
 b. 아버지가 어깨에 진 짐은 장작 다발이었다.
 c. 코끼리가 먹은 먹이는 특수 사료이다.
- (31) a. 그림을 김화백이 그렸다.
 b. 짐을 아버지가 졌다.
 c. 먹이를 코끼리가 먹었다.
- (32) a. 그림은 김화백이 그렸다.
 b. 짐은 아버지가 졌다.
 c. 먹이는 코끼리가 먹었다.

그렇다면 제 2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의 경우 의문문 대응과 분열문되기에서만 일반 타동구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동족목적어가 수식을 받게 되면 의문문대응이나 분열문되기도 가능해진다.

- (33) a. 김화백이 무엇을 그렸니?

- 조선시대 민화를 연상케 하는 그림을 그렸어.
- b. 아버지는 어깨에 무엇을 지고 집으로 들어오셨니?
→ 아버지께서는 파란색 보자기로 싼 커다란 짐을 지고 오셨어.
- c. 코끼리가 무엇을 먹고 있었니?
→ 코끼리는 영양제를 섞은 먹이를 먹고 있었어.
- (34) a. 김화백이 그린 것은 조선시대 민화를 연상케 하는 그림이다.
b. 아버지가 진 것은 파란색 보자기로 싼 커다란 짐이다.
c. 코끼리가 먹은 것은 영양제를 섞은 먹이다.

이렇게 수식의 유무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는 것은 의문문 대응과 분열문 자체의 속성과 관련이 있다. (33)의 의문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무엇을'에 대응되는 부분은 문장의 초점이 되는 부분이다. 초점은 정보구조적인 관점의 연구에 의하면 화자가 청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두드러지게 표현하는 새로운 정보 요소로서 문맥으로부터 도출할 수 없는, 화자가 제보적인 것으로 해석되기를 바라는 새로운 요소여야 한다.¹⁴⁾ '김화백이 무엇을 그렸니?'의 대답으로 '김화백은 그림을 그렸어요.'의 대답이 불가능한 것은 은 초점에 해당하는 '그림을'이 전혀 새로운 정보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질문의 전체의 반복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족목적어 '그림'이 수식을 받은 '조선시대 민화를 연상케 하는 그림'은 더 이상 질문의 전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지 않고 화자가 청자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정보요소가 되어 초점의 의미적 속성을 충족시키게 된다.

분열문의 '-이다' 앞도 분열문의 초점이 되는 자리이다. 분열문(cleft sentence)은 중립문 내부의 특정 요소를 초점화하는 통사적 장치이기 때문이다. 초점 자리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요소는 명사성이 높고, 지시성(referentiality)이 높아야 한다. 수식어나 서술어에 속하는 요소(연어나 관용표현의 동사를 제외한 구성요소)는 초점 자리에 올 수 없다.¹⁵⁾ 그리고 역시 초점의 의미적 속성을 만족시켜야 한다. 제 2유형의 동족목적어 구문의 동족목적어는 지시성은 높지만 전체와 초점 자리에 오는 요소의 의미가 일치해서 초점 자리에 오는 요소가 청자에게 새로운 정보가 될 수 없다. 그러나 동족목적어가 수식을 받게 되면 전제부분과 '이다' 앞에 있는 요소는 일치하지 않으며 새로운 정보가 되어 초점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이다.

이 유형의 'NP를'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대상성, 피영향성 등의 전형적인 목적어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림'은 동사가 의미하는 행위가 시작되어 끝남에 따라 완성되어져가기 때문에 변화를 입고, 동작에 영향을 받는다. '짐'은 동사 '지다'에 의해 위치의 변화를 입는다.

14) 박철우(2003), 정희원(2001)에서는 초점에 대해서 이루어진 정보구조적인 관점에서의 그간의 연구를 정리하고 한국어에서의 초점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15) 한국어의 분열문의 통사적, 의미적 특성에 대해서는 임규홍(1989), 김영희(2000), 박철우(2008)에서 연구된 바 있으며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초점 자리에 올 수 있는 성분의 성격은 이들 논문에서 언급된 것을 따랐다.

‘먹이’는 동사 ‘먹다’의 동작에 의해 변화를 입는다.

이상으로 살펴본 결과 앞서 제 1유형 동족목적어 구문보다 제 2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이 일반 타동구문의 성격에 더 가깝고 의미상 타동성도 더 높다. 이 유형에 속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¹⁶⁾

- (35) 가르침을 가르치다, 그림을 그리다, 느낌을 느끼다, 다짐을 다지다, 먹이를 먹다, 물음을 묻다, 받침을 받치다, 셈을 세다¹⁷⁾, 씹을 씹다, 짐을 지다.

3.3 제 3유형 동족목적어 구문

동족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는 타동사인 것이 당연하데 일부 자동사 중에 동족목적어를 취하는 부류가 있다. 이들은 자동사로서의 쓰임이 일반적이거나 동족목적어를 취해 타동구문이 된다.

- (36) 걸음을 걷다, 놀음을 놀다, 달리기를 달리다, 땀을 뒹다, 싸움을 싸우다, 삶을 살다, 울음을 울다, 웃음을 웃다, 잠을 자다, 졸음을 졸다, 죽음을 죽다, 외침을 외치다

우형식(1996)과 이병규(1996)에서는 제 3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을 본래 타동구문이었다는 것이 자동구문으로 실현되기도 한다고 하여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서술동사의 타동성이 축소되어 의사-자동구문이 되었다는 우형식(1996)의 설명은 타동성이 약한 ‘꿈을

16) (35)의 예문 중에서 ‘가르침을 가르치다, 느낌을 느끼다, 다짐을 다지다, 물음을 묻다’는 다음과 같이 언제나 동족목적어가 수식을 받아야 문장이 자연스러워진다.

- (i) a.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옛 성현의 가르침을 가르쳤다.
b. 연희는 그를 보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살아서 다시 온 것만 같은 느낌을 느꼈다.
c. 나는 올해에 나의 목표에 더 충실해야겠다는 다짐을 다졌다.
d. 과거의 역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는 물음을 묻는 태도는 오늘날 현대인의 역사의식을 드러낸다.

17) ‘셈을 세다’의 ‘셈’은 대상성이나 피영향성의 의미를 확인하기가 힘들고, 이 구문의 다른 동족목적어와는 달리 지시성도 낮다. 그리고 ‘셈을 세다’ 구문에서 ‘셈’은 수식을 받는 경우도 거의 없다. 그리고 ‘세다’가 ‘주로 특정 사물의 수효를 헤아리다’의 의미를 가지고 그 대상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논항으로 취하는데, ‘셈을 세다’의 용례를 살펴보면(‘셈을 세다’의 용례는 무척 드문데 21세기 세종계획의 약 1천만 어절의 말뭉치에서도 발견할 수 없고 인터넷에서 용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특정한 대상이 없이 단순히 숫자를 세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렇게 보면 ‘셈을 세다’는 이 유형의 구문에 넣기에는 그 성격이 매우 이질적이나 다른 유형 설정이 곤란하므로 서술어가 선택계약이 제한적이지 않은 타동사라는 면에서 이 유형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제 2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이 보여주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매우 예외적인 존재임을 밝힌다.

꾸다'나 '춤을 추다'가 절대 자동 구문으로 실현되는 법이 없다는 점에서 설명력이 떨어진다. 동족목적어를 잠재논항으로 설정하고 서술어가 이들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만 의미적 잉여성으로 인해 실현되지 않아 자동구문이 된다는 이병규(1996)의 설명은 의미적으로 잉여적인 논항을 서술어가 왜 요구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한송화(2001)을 따라 이들이 본래 자동사 구문인데 동족목적어를 취해 타동구문으로 실현된 것이라고 보겠다.¹⁸⁾

제3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은 동족목적어가 수의적이며 대응되는 자동사 구문과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다.

- (37) a. 수혜는 놀이에서 이긴 어린 아이처럼 씩 (웃음을) 웃었다.
 b. 아기가 밤새 울어서 아버지가 (잠을) 못 잤다.
 c. 할머니 곁에 누운 딸아이는 꾸벅꾸벅 (졸음을) 졸고 있었다.

이들은 일반적인 타동구문과 그 성격이 다른데 (17)과 (18)의 기준을 적용해 보면 (18)에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7)' a. 수혜는 놀이에서 이긴 어린 아이처럼 씩 {웃음을, *웃음이, *웃음에, *웃음으로} 웃었다.
 b. 아기가 밤새 울어서 아버지가 {잠을, *잠이, *잠에, *잠으로} 못 잤다.
 c. 할머니 곁에 누운 딸아이는 꾸벅꾸벅 {졸음을, *졸음이, *졸음에, *졸음으로} 졸고 있었다.
 (38) a. *수혜가 놀이에서 이긴 어린 아이처럼 무엇을 웃었니?
 b. *아이가 밤새 울어서 아버지가 무엇을 못 잤니?
 c. *할머니 곁에 누운 딸아이가 무엇을 졸았니?

18) 한송화(2001)에서는 주어의 의미역이 행위주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크게 자동사를 행위성 자동사와 비행위성 자동사로 나눈다. 한송화(2001)에서 행위성 자동사 중의 일부의 경우 주어 외의 논항에 대격을 할당하는데 동족목적어 구문이 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송화(2001)에서 '죽다'는 비행위성 자동사로 분류되어 있지만 동족목적어를 취할 수 있다. '죽다'는 '어떤 유정물의 목숨이 끊어지다'의 의미로 사용될 때는 주어가 어떤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대상역이 주어질 수 있지만, 주어가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어떻게 죽을지를 선택할 경우에는 주어의 의도성이 있으므로 의미역이 행위주가 될 수 있다. '사마천은 60세에 죽었다'의 경우 주어의 의미역은 대상역이지만 '그는 가난을 비판하며 스스로 죽었다.' '이순신 장군은 전쟁터에서 장렬한 죽음을 죽었다.'의 경우에는 모두 주어의 의도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어의 의미역을 행위주로 볼 수 있다. '죽다'는 이와 같이 행위성 자동사와 같은 쓰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를'명사구가 출현할 수도 있는 것이다.

(38)을 보면 제 2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의 경우에는 문장 성립 자체는 자연스럽지만 동족목적어 구문에 대응한 질문으로서는 성립할 수 없었지만 제 1유형 구문과 마찬가지로 제 3유형의 구문도 역시 동족목적어 구문에 대응한 질문으로서는 또 문장 자체로서도 성립이 불가능하다.

분열문되기, 관계관형화, 어순재배치, 주제화를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 (39) a. *수혜가 놀이에서 이긴 어린 아이처럼 씩 웃은 것은 웃음이었다.
 b. *아버지가 잔 것은 잠이다.
 c. *할머니 곁에 누운 딸아이가 꾸벅꾸벅 졸은 것은 졸음이었다.
- (40) a. 수혜가 웃은 웃음은 쓴웃음이었다.
 b. 아버지가 잔 잠은 새우잠이다.
 c. *딸아이가 졸은 졸음은...
- (41) a. ?웃음을 수혜가 놀이에서 이긴 어린 아이처럼 씩 웃었다.
 b. ?잠을 아버지가 못 잤다.
 c. ?졸음을 할머니 곁에 누운 딸아이가 졸고 있었다.
- (42) a. ?웃음은 수혜가 웃었다.
 b. ?잠은 아버지가 못 잤다.
 c. ?졸음은 할머니 곁에 누운 딸아이가 졸았다.

(39)부터 (42)를 보면 모두 문장이 어색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동족목적어가 수식을 받아도 분열문은 여전히 어색하다.

- (43) a. ? 수혜가 웃은 것은 환한 웃음이었다.
 b. ? 아버지가 잔 것은 깊은 잠이었다.
 c. *딸아이가 졸은 것은...

(43)의 예문을 보면 화자마다 판단이 다를 것 같은데 필자의 판단으로는 자연스럽지 않다. 특히 '졸음을 졸다'의 경우는 수식을 받아도 분열문되기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초점 자리에 오는 명사구가 새로운 정보여서 가능할 것 같지만 이 문장이 어색한 것은 분열문 초점 자리에 관용표현이나 연어구성을 보이는 성분의 일부는 올 수 없다는 제약 때문이다. 제 1유형과 제3유형의 경우에 동족목적어가 수식을 받아 초점 자리에 올 수 있는 의미적 특성을 가지게 되어도 분열문이 불가능한 것은 이 두 유형의 동족목적어와 서술어 사이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제3유형의 동족목적어 구문의 동족목적어의 의미를 보면 서술동사의 행위에 따른 목적어

의 영향입음도 확인하기 어렵다. 대상성의 의미도 찾기 매우 어렵다. 서술어의 영향이라 한다면 서술어의 동작에 의존해서 목적어가 존재한다는 것 정도밖에는 확인할 수가 없다. 따라서 통사적 특성과 의미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제 3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은 다른 동족목적어 구문보다 전형적인 타동구문과 가장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겠다.

제 3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은 (34)와 같이 자동사 구문으로 대치되어도 큰 차이가 없지만 언제나 대치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유현경(1998)에서 ‘삶을 살다’와 ‘살다’가 여러 통사적 차이를 보이고 또 언제나 동치는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

- (44) a. 민수는 광주(에, 에서) 3년을 살았다.
 b. 영신이는 고향집(*에, 에서) 편안한 삶을 살았다.
- (45) a. 철수는 서울에 {살아/살고} 있다.
 b. 승훈이는 행복한 삶을 [*살아/살고] 있다.
- (46) a. 수진이는 신앙의 힘으로 살았다.
 a'. 신앙의 힘이 수진이를 살렸다. / 신앙의 힘이 수진이를 살게 했다.
 b. 신혜는 허영 때문에 불우한 삶을 살았다.
 b'. *허영이 신혜에게(를) 불우한 삶을 살렸다. / 허영이 신혜에게(를) 불우한 삶을 살게 했다.
- (47) a. 그 노부부는 시골에서 남은 삶을 살았다.
 a'. *그 노부부는 시골에서 남게 살았다.
 b. 그 조각작품은 마치 살은 것 같다.
 b'. *그 조각작품은 마치 삶을 살은 것 같다.

(44)에서 (47)을 보면 동족목적어 구문의 경우 행위의 진행을 의미하기 때문에 ‘NP에’ 논항이 나올 수 없고, 일부 자동사와만 결합하는 ‘-아 있-’과는 결합이 불가능하며, 장형사동만이 가능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47)를 보면 동족목적어 구문이 대응되는 자동사 구문과 항상 대치가 가능한 것이 아니며, 자동사 ‘살다’의 의미가 달라지면 동족목적어 구문으로 나타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¹⁹⁾

(47) 외에도 동족목적어 구문과 자동사 구문의 대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다음과 같다.²⁰⁾

19) (44)에서 (47)까지의 예문은 유현경(1998)의 예문이다.

20) ‘살다’와 ‘삶을 살다’의 통사적 특성의 차이는 이 둘의 의미 차이와 관련이 있다. 그러나 다른 동족목적어 구문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차이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동족목적어를 취하는 자동사들은 ‘NP(장소)에’가 문장에 나타나기 어렵고, ‘-아 있다’와 결합이 어렵다. 사동문의 되기의 경우 ‘살다’의 경우와 비슷하나 일반적으로 장형사동이 제약이 더 적다.

- (48) a. 그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짓눌려 무거운 걸음을 걸었다.
- b. 축복받은 영혼들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 (48)' a. *그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에 짓눌려 무겁게 걸었다.
- b. *축복받은 영혼들은 선하게 싸웠다.

대치가 가능하지 않은 것은 (47a)처럼 동족목적어가 관형어에 의해 수식을 받고 있을 때 그러하다. '무거운'이 '걸음'을, '선한'이 '싸움'을 수식하는 것은 자연스럽게만 '무겁게'가 '걷다'를 '선하게'가 '싸우다'를 수식하는 것은 매우 어색하다. 한송화(2001)에서 동족목적어 구문에서 동족목적어가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경우 이는 명사구의 한정어 아니라 동사의 의미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했지만²¹⁾ (48)과 같이 대치가 되지 않는 것을 보면 동족목적어의 수식어는 명사구를 한정한다고 할 수 있다.

4. 동족목적어 구문의 구조

3장에서 서술어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동족목적어 구문을 유형분류하고 각각 전형적인 타동구문과 어떤 다른 점을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은 표로 제시할 수 있다.

표 1. 동족목적어 구문의 유형별 특성

동족목적어 구문의 유형	제 1유형	제 2유형	제 3유형
서술어 특성	타동사 (선택제약 제한적)	타동사	자동사
해당 동족목적어 구문 조사 치환	꿈을 꾸다	그림을 그린다	웃음을 웃다
'무엇을' 의문문 대응	×	×	×
생략	×	(수식을 받으면○)	○
분열문	×	×	×
관계관형화	○	(수식을 받으면○)	○
어순재배치	○	○	○
주제화	○	○	○

21) 한송화(2001)에서는 대치가 가능한 다음과 같은 예를 들어 동족목적어가 수식을 받으면 수식어가 동족목적어를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를 수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ex) a. 그는 쓸쓸한 웃음을 웃었다. / 그는 쓸쓸하게 웃었다.
- b. 그는 서글픈 울음을 울었다. / 그는 서글프게 울었다.

동족목적어 구문이 전형적인 타동구문과 가까운 순서대로 언급한다면 제2유형>제1유형>제3 유형의 순이다. 제 2유형 구문의 경우에는 동족목적어의 의미적 특성이 대상성이나 피영향성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 목적어와 비슷하고 서술어도 동족목적어나 그 하위어만을 목적어로 취하거나 특정 명사만을 목적어로 취하는 등의 특성을 가지지 않고 일반 다른 타동사처럼 다양한 명사구를 목적어로 취할 수 있다. 또 여러 통사적 기제를 적용해 본 결과 분열문되기와 의문문 대응에서만 제약을 보이지만 동족목적어가 수식을 받을 경우 이 제약도 해소된다. 따라서 제 2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은 일반적인 타동구문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 1유형 구문은 서술어의 선택제약도 매우 제한적이고 동족목적어의 의미적 특성도 전형적인 목적어와는 차이가 있다. 제 3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은 동족목적어가 필수적이지 않고, 목적어의 의미도 대상성이나 피영향성과는 거리가 멀다. 이 두 유형의 구문은 동족목적어가 수식을 받아도 의문문 성립 자체가 불가능하고 분열문 성립이 어색하여 전형적인 타동구문과 가장 거리가 멀다. 이 장에서는 제 2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은 일반적인 타동구문과 매우 비슷하기 때문에 제 1유형 동족목적어 구문과 제 3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 구문이 왜 전형적인 타동구문과 큰 차이를 보이는지 그 구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Givon(1984)에서는 타동성에서 멀어진 구문을 소개하는데 기능동사 구문과 동족목적어 구문을 동일시하여 제시하고 있다. 홍재성(1989)에서는 기능동사 구문과 동족목적어 구문을 동일시한 Givon(1984)와 동족목적어 구문과 기능동사 구문 사이의 규칙적인 대응을 주장했던 Fillmore(1968)의 논의를 소개하면서 동족목적어 구문 안에서 기능동사를 다루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동족목적어 구문을 기능동사로 분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언급하여 논의를 열어 두었다. 동족목적어 구문 전체를 기능동사 구문과 관련지은 논의는 없지만 기능동사나 복합술어를 논의하면서 특정 동족목적어 구문을 그 예로 든 것이 있다. 양정석(1987)에서는 ‘꿈을 꾸다’, ‘춤을 추다’를 기능동사 구문으로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기능동사는 서술명사가 쓰인 문장에 문장 구성의 필수적 요소로 조동사와 유사하게 시제, 상, 양태 등 문법 형태소의 실현이 가능하도록 돕는 동사를 말한다. 논자에 따라 기능동사의 범위를 달리 설정하는데 서정수(1975)에서는 서술성 명사와 결합하는 ‘하다’를 형식동사(dummy verb)라고 이름을 달리하여 여기서 언급하는 기능동사로 보고 있다. 홍재성(1989, 1992, 1993, 1999)에서는 기능동사를 어휘의미가 약해진 ‘먹다, 보다, 시키다’ 등까지 확장하는데 이렇게 보면 기능동사에 해당하는 동사의 수가 너무나 늘어나고 또 이 많은 수의 동사가 모두 서술어로서의 어휘 의미가 없어지고 서술명사에 기대어 쓰인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어휘 의미가 없는 기능동사와 서술성명사 구성, 일반동사와 서술성명사 구성을 한 범주로 다룬 것이 복합술어 논의이다. 이선희(1993)은 홍재성(1992, 1993)의 기능동사의 무리한 확장을 비판하고 기능동사는 ‘하다’로만 제한하되, 서술성명사가 일반 명사와 결합하여 ‘하다’

와 결합하는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 모두를 복합술어 구문²²⁾으로 파악하였다. ‘하다’와 서술성명사의 결합은 기능 복합술어 구문, 일반동사와 서술성명사의 결합은 일반복합술어 구문이라 하였다. 동족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들은 그 고유한 어휘의미를 가지고 있기에 기능복합술어 구문으로 논의하기는 힘들고 만약 다룬다면 일반복합술어 구문으로 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²³⁾

복합술어는 내적으로는 통사적 구성이지만 문장 안에서는 한 단위를 이루어 서술어로서 기능한다. 따라서 복합술어 구문은 생략과 대명사화에 제약을 가진다.²⁴⁾ 동족목적어 구문²⁵⁾에 이러한 제약 현상을 확인해 보면 다음과 같다.

- (49) a. *언니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고, 나도 ∅ 꾸었다.
 b. *언니가 어젯밤에 꿈을 ∅, 나도 꿈을 꾸었다.
 (50) a. 수혜는 웃음을 웃었고 나도 ∅ 웃었다.
 b. *수혜는 웃음을 ∅, 나도 웃음을 웃었다.

(49), (50)은 동족목적어와 서술어 중의 하나가 생략이 가능한 지를 확인한 것이다. (49)은 생략에 제약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0a)가 자연스러운 것은 ‘웃다’가 ‘웃음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 (51) *언니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고, 나도 그것을 꾸었다.
 (52) *수혜는 웃음을 웃었고 나도 그것을 웃었다.

- 22) 기능동사 구문이나 복합술어 구문이나 동일한 구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복합술어 구문이라고 했을 때는 서술성명사와 기능동사 혹은 서술성명사와 일반동사가 문장의 하나의 술어 단위 즉 복합술어를 이루고 서술성명사가 하위범주화 하는 논항을 통사적으로 취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23) 홍재성(1992, 1993, 1999)의 기능동사의 범위는 매우 넓기 때문에 홍재성(1989)에서 동족목적어 구문과 기능동사 구문의 관련성을 논의한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기능동사를 ‘하다’에 한정하고 동족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동사가 어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복합술어 구문으로 파악할 수 있는지를 논의하겠다.
 24) 이호승(2004)에서는 복합술어의 단일성분성의 식별 기준으로 선행명사의 생략 및 대용화 제약 현상을 들고 있다.
 ex) a. *그는 가짜라고 동네에 소문이 돌고 그녀는 미쳤다고 학교에 ∅ 돈다.
 b. *그는 가짜라고 동네에 소문이 ∅, 그녀는 미쳤다고 학교에 소문이 돈다.
 ex) a. *철수는 학원에 등록을 마쳤고, 영수도 학원에 그것을 마쳤다.
 b. *철수는 학원에 무엇을 마쳤느냐? 방금 등록을 마쳤어요.
 25) 이 장에서 구조를 살펴보는 것은 제 1유형과 제 3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이므로 특별한 언급 없이 동족목적어 구문이라고 했을 때는 제 1유형과 제 3유형을 가리키는 것이다.

(51), (52)는 동족목적어를 대명사화할 수 있는지를 확인한 것인데 모두 대명사화에 제약을 보이고 있다. 생략과 대명사화의 제약을 보면 동족목적어 구문이 복합술어구문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이선희(1993)에서 복합술어구문은 본고에서 살펴본 의문대명사 대응, 주제화에 제약을 보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복합술어 구문의 경우에는 분열문 형성에 제약을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동족목적어 구문에서도 이러한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의문대명사 대응이나 분열문 형성은 모든 동족목적어 구문에서 제약을 보였고, 제2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의 경우에는 주제화도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통사적 특성을 복합술어 구문과 공유하고 있다고 해도 동족목적어 구문의 'NP를'은 논항을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복합술어 구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물론 다음과 같은 경우는 동족목적어 구문의 'NP를'이 논항을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 (53) a. 언니는 멋진 가수를 꿈(을) 꾸었다.
 b. ?아이들이 신나게 디스코를 춤 추었다.
 c. 민호는 자신보다 몸집이 큰 친구와 싸움을 싸워서 이겼다.
 d. 단장은 지회와 잠을 자고 싶어 안달이다.

양정석(1987)에서 (53a)과 (53b)은 기능동사 구문으로 분류된 바 있다. (53c)에서는 '싸움'이 '친구와'를, (53d)에서는 '잠'이 '지회'를 논항으로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 (53a)는 복합술어 구문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이 경우 '꿈을 꾸다'의 의미는 어떤 이상이나 희망을 품다'의 의미로 달라진다. 의미가 달라지면서 논항 구조도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본인의 직관에 (53b)은 어색하다. '디스코를'이나 '춤' 중에서 하나만 문장에 나타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53c), (53d)은 '싸움', '잠'을 생략해도 비문이 아니기 때문에 '친구와', '지회와'는 '싸우다', '자다'의 논항으로 보인다. 전이된 의미를 가지는 '꿈을 꾸다'에 한정하여 복합술어 구문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도 이는 동족목적어 구문 중 한 예가 가지는 특성에 불과하기 때문에 동족목적어 구문과 복합술어 구문을 동일시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복합술어 구문이 가지는 여러 통사적 특징이 동족목적어 구문에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동족목적어 구문과 복합술어 구문이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은 동족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명사화 제약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동족목적어와 서술어가 한 성분으로 문장 안에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동족목적어 구문이 분열문되기 제약을 보여주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다.

의미상으로도 동족목적어 구문의 서술어와 동족목적어는 한 단위를 이룬다. 제1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의 경우 서술어의 의미 구조 안에 그들이 목적어로 취하는 성분의 의미가 이미 들어 있다. '꾸다'는 '꿈을 경험하다', '추다'는 '춤동작을 하다' 등으로 이미 서술어의 어휘 구조 안에 이들이 취할 목적어 성분이 들어 있다. 서술어의 의미 안에 목적어의 의미가 이미 들

어 있는 것이다.²⁶⁾ 목적어의 의미가 서술어의 의미에서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만 통사적으로도 반드시 실현된 것이다. 그래서 이들 동족목적어와 서술어의 의미는 이들 의미의 합이 아니라 서술어의 의미이며 이때 동족목적어는 통사적으로는 필수적이지만 의미적으로는 잉여적이다. 제3유형 구문의 동족목적어는 통사적으로도 잉여적이지만 의미적으로도 잉여적이다. 이들이 실현되지 않아도 문장이 성립 가능하고 동족목적어가 수식을 받지 않는 한 큰 의미차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도 동족목적어와 서술어의 의미는 이들의 의미합이 아니라 서술어의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동족목적어가 의미적으로 잉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들이 동사의 명사파생형이기 때문에 동사가 가지고 있는 동작성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호승(2004)에서는 복합술어 구문의 여러 통사적 특징이 연어 구성에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연어 구성과 복합술어가 여러 가지 통사적 특성에 있어서 비슷하지만 연어 구성의 'NP를'이 논항을 취할 수 없는 경우는 복합술어 구문이 될 수 없다고 하였다.²⁷⁾ 동족목적어 구문의 동족목적어는 논항을 취할 수 없지만 'NP를'과 'V'를 통사적으로 의미적으로 한 구성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연어 구성으로 볼 수 있다.

연어 구성(collocation)은 일반적으로 고정적이거나 제한적으로 공기하면서 두 구성 요소가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연어 구성은 '고정적, 제한적, 긴밀한 공기 관계'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포착하기 매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의미적 결합관계에 주목하여 '의미적인 긴밀성'이나 '의미 해석의 투명성'과 같은 것으로 연어를 정의하기도 하는데 그 판단이 대부분 주관적이다(서상규(2002)). 따라서 어디까지를 연어로 볼 것인가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강현화(1997)처럼 통사적 구성이면서 두 구성요소가 긴밀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면 모두 연어로 보는 견해도 있고 임홍빈(2002)처럼 연어핵의 투명성 여부에 따라 관용어를 제외하는 견해도 있다. 홍종선·강범모·최호철(2001)에서는 코퍼스 분석에 따라 서로 빈번하게 같이 나오는 요소들을 연어로 처리하고 있다. 이에 김진해(2007)에서는 통계처리가 연어를 확인하는 객관적인 중요한 자료가 될 수는 있겠지만 연어 확인의 절대적인 기제가 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밥을 먹다'가 통계 처리 상으로는 연어지만 직관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연어핵과 연어변의 구별, 의미투명성 확인이 모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이 연어다 아니다'를 가리는 것보다 연어 관계를 정도성의 관점으로 바라보아 연어 관계를 매우 포괄적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주장하기도 했다.

26) 이것은 이병규(1996)의 명세논항과 비슷한 특성을 가진다. 이병규(1996)에서는 '꿈'과 '춤'을 명세논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꿈'과 '춤'이 이병규(1996)의 명세논항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완전히 일치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앞에서 언급했다.

27) 이호승(2004)에서는 연어 구성과 연어적 복합술어 구문을 분리하고 있다. '영수는 화단에 오줌을 갈겼다.'는 연어 구성이고, '철수는 영희와 사랑에 빠지다'는 '사랑에 빠지다'가 '영희와'라는 논항을 취하고 있으므로 연어적 복합술어 구문으로 보았다.

언어 구성을 넓게 보면 언어 구성에 속하는 것들은 관용어처럼 완전히 한 단위로 굳어지고 의미가 불투명해진 것도 있지만 긴밀하기는 하지만 한 구성으로 볼 수 없는 것도 있고 의미가 투명한 것도 있다. 언어 구성이 이렇게 다양한 성격을 지닌 것이기에 동족목적어 구문을 언어 구성이라고 하면 모호한 설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족목적어 구문은 서술어와 목적어의 긴밀성 정도가 매우 높아서 한 단위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구성요소가 긴밀해서 한 단위처럼 행동하는 전형적인 언어 구성의 성격을 띠므로 동족목적어 구문을 언어 구성으로 파악하는 것은 언어 구성을 협의로 보든 광의로 보든 설명력이 유효하다.²⁸⁾

동족목적어 구문이 타동성에서 멀어진 것도 이들이 언어 구성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목적어는 문장 안에서 독립된 논항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동족목적어 구문의 경우는 유형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동족목적어가 독립적인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보기에 어려운 여러 제약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동족목적어가 온전히 자유롭게 문장 안에서 단독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먼저 서술어와 결합하여 구성요소를 이룬 후에 문장에서 기능하기 때문이다.

5. 결론

동족목적어 구문은 문장의 서술어인 동사의 명사파생형을 목적어로 한다는 특이한 점과 때로는 목적어를 생략해도 문장이 성립한다는 점 때문에 타동성, 목적어, 동사의 유형과 관련하여 부분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동족목적어를 취하는 서술어들의 특성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보통 하나로 묶어 설명하였기 때문에 논의의 전개에 유리한 동족목적어 구문의 예만 들고 있는 문제가 발견되기도 하였고, 특정 유형의 구문은 동족목적어 구문에서 제외하는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족목적어 구문을 확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은 형태적인 특성이 유일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동족목적어 구문으로 판단하였다. 그리고 각 서술어별로 동족목적어 구문의 유형을 분류하여 각각의 특징을 서술하였다.

동족목적어 구문은 서술어의 특성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제 1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은 서술어가 동족목적어와 그 하위어, 혹은 특정 명사만을 논항으로 취하는 타동사인 경우, 제 2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은 서술어가 선택제약이 제한적이지 않은 타동사인 경우, 제 3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은 본래 그 서술어가 자동사여서 동족목적어가 필수적이지 않은 경우에 각각 해당된다. 그리고 각 유형마다 전형적인 타동구문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제 2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은 목적어의 의미특성이나 구문의 통사적 특성이 일반적인 타동구문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몇몇 목적어 검증 기제에 부합하지 않는 것

28) 강현화(1997)에서는 동족목적어 구문을 각각의 의미가 투명하게 결합하여 의미합을 이루는 언어 구성으로 파악하고 그 예로 '꿈을 꾸다'를 들었다.

은 검증 기제 자체의 특성과 동족목적어의 의미 특성과 관련하여 설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제 1유형 동족목적어 구문과 제 3유형 동족목적어 구문은 목적어의 의미적 특성도 일반적인 목적어와는 많이 다르고, 서술어의 특성이나 구문의 통사적 특성도 일반 타동구문과 많이 달랐다. 이에 4장에서 이 두 유형의 동족목적어 구문에 한하여 그 구조를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동족목적어 구문이 몇몇 논의에서 기능동사 구문과 동일시되어 기술되었고 홍재성(1989)에서 그 논의를 열어둔다는 언급을 확인하고 그 연관성을 확인해보았다. 본고에서는 기능동사는 어휘의미가 완전히 비어 있는 '하다'에 제한했기 때문에 동족목적어 구문을 일반복합술어 구문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여러 통사적 특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동족목적어 구문의 'NP를'은 논항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동족목적어 구문을 일반복합술어 구문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동족목적어 구문이 복합술어 구문과 유사한 통사적 특성을 보이는 것은 이들이 연어 구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체언+용언'꼴 연어 구성도 복합술어 구문과 비슷한 통사적 특성을 드러내지만 명사구가 논항을 취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고문헌

- 강현화. (1997). [체언+용언] 꼴의 연어 구성에 대한 연구. *사전편찬학연구*, 8, 191-224.
- 고영근·구본관. (2008). *우리말 문법론*. 서울: 집문당.
- 김광해. (1998). *국어 어휘론 개설*. 서울: 집문당.
- 김진해. (2000). *연어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김진해. (2005). 왜 연어인가?-이론과 현실 사이: '밥을 먹다'와 '눈을 뜨다'를 중심으로. *형태론*, 7(1), 162-169.
- 김진해. (2007). 연어 관계의 제자리 찾기. *한국어학*, 37, 229-260.
- 문금현. (1999). *국어의 관용 표현 연구*. 서울: 태학사.
- 박철우. (2002). 국어의 보충어와 부가어 판별 기준. *언어학*, 34, 75-111.
- 박철우. (2003). *한국어 정보구조에서의 화제와 초점*. 서울: 역락.
- 박철우. (2008). 국어 분열문의 통사구조. *한말연구*, 22. *한말연구학회*, 77-96.
- 서상규. (2002). 한국어 정보 처리와 연어 정보. *국어학*, 39, 321-353.
- 서정수. (1975). *동사 "하"의 문법*. 서울: 형설출판사.

- 성창섭. (1996). 영어 동족목적어 구문 연구. *언어와 언어교육*, 12, 1-9.
- 양정석. (1987). 이중주어문과 이중목적어문. *연세어문학*, 20, 1-64.
- 연재훈. (1997). 타동성의 정의를 위한 원형이론적 접근. *언어*, 22(1), 107-132.
- 우형식. (1994). 동사의 결합가 기술에 대한 방법론적 접근. *한글*, 225, 83-108.
- 우형식. (1996). 국어 타동구문 연구. 서울: 박이정.
- 유현경. (1998). 동사 '살다'의 타동사 용법에 대하여. *국어 문법의 탐구IV*, 서울: 태학사, 59-75.
- 이광호. (1988). 국어 격조사 '을/를'의 연구. 탐출판사.
- 이병규. (1996). 문장 구성 성분의 향가 의존성 검토. *국어문법의 탐구III*, 서울: 태학사, 173-215.
- 이병규. (1998). 잠재 논항의 개념 정립. *국어문법의 탐구III*. 서울: 태학사. 123-174.
- 이선희. (1993). 복합술어 구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선희. (1999). 조사 {-를}의 의미와 그 문법적 실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익섭·채완. (1999). *국어문법론강의*. 서울: 학연사.
- 이호승. (2004). 국어 복합술어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이흥식. (2000). 문장의 주성분 연구. 서울: 월인.
- 임규홍. (1986). 국어 분열문에 관한 연구. *어문학*, 48, 한국어문학회. 155-175.
- 임흥빈. (2002). 한국어 언어의 개념과 그 통사 · 의미적 성격. *국어학*, 39, 279-311.
- 정희원. (2001). *한국어의 대조화제와 화제, 초점 - 정보구조적인 관점에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정희정. (1997). 서술성 명사의 통사적 특성. *사전편찬학연구*, 7, 115-148.
- 한송화. (2000). *현대 국어 자동사 연구*. 서울: 한국문화사.
- 홍재성. (1989). 한국어 자동사/타동사 구문의 구별과 사전. *동방학지*, 63, 179-229.
- 홍재성. (1992). 동사 '먹다'의 사전적 처리를 위한 몇 가지 논의. *새국어생활*, 2(4).
- 홍재성. (1993). 약속의 문법: 서술명사의 어휘 · 통사적 기술과 사전. *동방학지*, 81, 213-252.
- 홍재성. (1999). 기능동사 구문 연구의 한 시각. *인문논총*, 41, 135-173.
- 홍종선·강범모·최호철. (2001). *한국어 언어 관계 연구*. 서울: 월인.
- 金亨貞. (2006). 韓國語における<ワ(wa)>格補足語の分布及び特性. *朝鮮語研究會發表文(大阪)*. 1-20.
- Austin, P. (1982). Transitivity and cognate object in Australian language. *Syntax and semantics*, 15, 37-48.
- Fillmore, C. J. (1968). The case for case, In Bach, E. & Harms, R. T.(Eds.).

- Universals in Linguistic Theory*.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Givón, T(1984). *Syntax: a functional typological introduction Vol. 1*, Amsterdam: John Benjamins.
- Hopper & Thompson. (1980). Transitivity in grammar and discourse, *Language* 56, 251-299.
- Jayaseelan, K.A. (1988). Complex predicates and Θ -theory, *Syntax and Semantics*. 21.
- Jones, M. A. (1988). Cognate objects and the case-filter. *Journal of Linguistics*, 24, 89-110.
- Massam, D. (1990), Cognate objects as thematic objects. *Canadian Journal of Linguistics*, 35, 161-190.
- Nakajima, H. (2006), Adverbial cognate objects, *Linguistic Inquiry*, 37, 674-684.

손혜옥

152-774 서울시 구로구 신도림동
대림2차아파트 204-1202
전화: (02)6347-0923
이메일: darmal@hanmail.net

Received: 1 May, 2009

Revised: 17 June, 2009

Accepted: 20, June, 2009